

새정치 '빅3' 동반사퇴... 불붙는 당권레이스

문재인·박지원·정세균 비대위원서 물러나 박주선·김동철·김영환 후보 단일화 합의 이인영·김부겸 등 단일화, 합종연횡 변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비대위원이 17일 동반 사퇴함에 따라, 내년 2·8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의원 등 '빅 3'의 전대 동반 불출마론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빅3' 불출마를 지지하는 연방장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차기 전대에서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문, 박, 정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퇴를 공식 선언하고, 비대위원직에서 나란히 물러났다.

이로써 지난 9월 중순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직 사퇴 이후 구성된 '문화상 비대위'는 약 3개월만에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전당대회까지 활동하게 됐다.

문 위원장은 18일 후임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한 뒤 19일 첫 비대위 및 당무위 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대 물을 확정할 방침이다. 후임 비대위원으로는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과 원혜영 혁신실천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7~28일 후보자 등록, 내년 1월7일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2월8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로선 이른바 당권 경쟁에 있어 '빅 3'의 동반 출전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다음 주 중으로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불출마 결정 가능성과 소위 '빅 3'의 동반 불출마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의

의원들이 빅3의 동반 불출마 결단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미애, 이인영, 김부겸 등 '제3 후보'의 등장 여부, 일부 주자들의 단일화 및 계파 간의 합종연횡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당장 이인영 의원이 17일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열의 리더십을 넘어 단결의 리더십으로, 당을 새롭게 혁신하는 전면적 리더십 교체의 깃발을 들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빅 3'의 당권 도전에 대해 "당의 밑바닥에서는 이 세 분만으로 전대를 치르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회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부겸 전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그는 "유인태 의원 등이 '전대가 빅3 구도와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의 대결 양상으로 가는 걸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불출마 선언을 연

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불출마 유보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민집모(민주당집권을위한모임) 소속 박주선, 김동철, 김영환 의원은 대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3인은 당 대표 단일후보와 지도부 입성, 단일후보 지원 등을 통해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바로 세우고 중심을 지키기 위해 역할분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컷-오프에 앞서 빅 3에 맞서는 비주류 단일 후보가 가시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비대위 참석 野 당권주자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정세균, 문재인 비대위원 등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국회 결국 파행

野, 국정농단 규명 운영위 소집 요구 與 거부에 상임위 일부 일정 보이콧

경제·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연말 임시국회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사흘 만인 17일 부분 파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자 이날 예정된 상임위 일정 일부를 보이콧했다. 다만, 국회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공세 수위를 조절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선실세 국정농단·청와대 외교규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 철회와 운영위 개최 등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아니고 상임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판단하면 된다"면서 "다만 운영위를 개최함과 동시에 여야 상임위가 같이 작동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18일도 운영위 소집이 안 되면 정상적인 상임위 가동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의 특검이나 운영위 개최 요구도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직무유기이고 의정 농단"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지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부분적인 파행 상황이 빚어졌다. 창조경제활성화특위도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다만, 교문위 법안소위만 예정대로 열렸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조,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등 지난 10일 여야 '2+2' 회동에서 한 합의도 여야 이견으로 결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진당, 내일 '운명의 날'

현재, 해산심판 선고...정당활동금지 가처분 결정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생중계된다.

예조 오는 22~24일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앞당겨져 정해졌다.

현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내년 1월 말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현재 선고가 앞서게 됐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진보당은 선고기일이 코앞까지 닥쳤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직자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이석기의 대표 체제에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표변인은 브리핑에서 "최종변론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총변론 심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대통령, '문건파문'속 인적쇄신 카드 뽑나

국정동력 회복·집권 3년차 분위기 일신 효과 노려 與내부 개각·靑개편 여론 비등... 대통령 결단이 관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파문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 위기를 맞으면서 정치권에 인적쇄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핵심지지층마저 이탈조짐을 보이면서 여론 내에서는 조차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비판이 잇따르는 등 조기 레임덕 현상이 나오자 국면 반전과 집권 3년차 분위기 일신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중진인 심재철 의원이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잃어버린 시간을 또다시 문건 유출로 흘려보낸다면 국정동력의 심각한 상실이 우려된다"면서 "인사가 만사인 만큼 대통령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청와대는 일단 이런 움직임을 부인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의 인적쇄신 단행 보도에 대해

"그런 움직임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후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못 한만큼 이번에는 인적개편을 중심으로 국정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시기는 부처별 신년업무보고가 시작되는 내년 1월12일 이전이 될 전망이다. 이르면 올 연말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상은 그동안 위기관리 부재, 소신부족, 문고리 비선 등 많은 지적을 받아온 비서실 핵심인사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내외 정보

와 의견이 폭넓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의 정계입문 때부터 보좌해온 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에 대한 신임과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단행,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각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교체설이 지배적이다. 정 총리는 지난해 3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총리로 발탁돼 2년간 총리직을 수행했다. 특히 지난 4월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후 안대희·문창국 총리 후보의 잇따라 낙마로 임기가 연장된 점도 교체에 불가피한 이유로 꼽힌다.

정 총리 외에도 이미 사의를 수차례 표명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임명된 장관들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 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걸고 사용중인 상호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본인 숫자번호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빙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를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 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보이스' 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앙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眞'김시연'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주)콜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